

Robert Vannoy , 구약 역사, 강의 5

창세기 1장과 하나님, 창세기 1:1-2

씨. 하나님은 우주의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

나는 그 점에 관해 방금 두 가지를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의 존재를 가정한다. 제2의 유일신교가 전제되고 그런 의미 에서 가르쳐졌습니다 .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뜻하는 명사의 복수형(엘로힘, 히브리어로 " im " 어미는 복수 어미임)에 관해 약간의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다신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아마도 신의 복수형도 아닐 것입니다. 위엄의 복수.

c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장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는 반복된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창의적인 행위 와 관련하여 말합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주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느니라” 고 말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창세기 1장의 가르침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과 분리되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d.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과 분리되어 계십니다. 구약성서에는 신이 창조된 질서와 동일시되는 범신론에 대한 암시가 없습니다. 창세기 1~3장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자연의 신이 아닙니다. 그는 별개입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물과 구별되며, 이는 성경의 자료를 고대 근동의 많은 현대 신화 자료와 차별화시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과 분리되어 계십니다. G. 에른스트 라이트(Ernst Wright)는 그의 *저서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21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있습니다. G. 에른스트 라이트 *행동하시는 하나님*. 21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자연적, 문화적, 철학적 종교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신이 계십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도, 존재와 생성의 자연적 과정 속에서도 임박한 힘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의 본질은 그의 역사적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그는 역사를 초월하듯이 자연도 초월하며, 결과적으로 이교의 기초 전체를 파괴합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나 세력도 다른 어떤 것보다 그에게 더 특징적인 것이 없으며, 오늘날 초기 이스라엘에서 이전의 동일시가 산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이었다는 것이 점점 더 이해되고 있습니다. 진화된 것은 학문적 가정과 상상의 산물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신교에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경험적 근거에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는 독특하고 독특 *하며*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것이 구약성서, 특히 여기

창세기 1장에 묘사된 신의 독특성에 대한 아주 좋은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한 네 가지 사항은 그의 존재가 전제되고, 유일신교가 전제되고, 그는 전능한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의 창조물과 별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독특하고 매우 높은 하나님 개념을 제공합니다.

2. 우주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 a. 우주는 자존하거나 신성하지 않습니다. b . 그것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도 않고 신과 인간에 대해 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주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 나는 종합적으로 볼 때 우주에 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논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우주는 자존하지도,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즉, 우주는 하나님의 본질의 확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창조된 우주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하지도 않고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비 . “그것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창세기의 특정한 창조 행위 뒤에 반복되는 문구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된 질서의 본질은 좋은 것이다. 물질이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주장하는 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으며 물질과 정신 사이의 대조를 물질이 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창조물은 타락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만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만들어진 질서가 즐겁고 좋습니다.

씨. 우주는 신성한 창조자의 뜻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d. 그 형성은 질서 있는 단계를 따른다. c., “우주는 신성한 창조자의 뜻에 따라 존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존적이거나 신성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창조자의 뜻에 따라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르시고, 창조적인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d. “그 형성은 질서정연한 단계를 따릅니다.” 우리는 6일간의 창작 활동을 통해 1장 전체에 걸쳐 이러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형성은 질서정연한 단계를 따랐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주에 관한 일반적인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일반적인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3. 창세기 1-2장의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 a. 우주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존하지도 않고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b.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힘입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c.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정점으로 온다 d. 인간은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창조물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 셋째, 창세기 1-2장의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첫째, 우주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자존하지도 않고 신성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역사의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비.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힘입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진화론과 관련하여 논의할 것입니다. 나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떤 식으로든 기원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에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씨.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행위의 정점으로 온다. 창세기 1장은 절정에 이르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다른 창조 활동이 끝나는 여섯째 날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행위의 정점으로 옵니다. 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머지 모든 창조물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인 피조물이 됨으로써 나머지 창조물과 특성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른 피조물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독특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26-27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니라” 그리고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지적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긴 토론을 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이성적이며 도덕적인 존재이며 이것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켜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자형. 인간은 동물 창조물에 대한 신성한 권위 또는 지배권을 갖고 있으며 지구를 정복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자형. , “인간은 동물 창조물에 대한 신성한 권위나 지배권을 가지고 있으며 땅을 정복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제압하십시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그 가르침들이 창세기 1장에서 인류에 관해 발견한 내용을 요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존하거나 신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힘입어 존재했으며,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정점으로 왔습니다. 그는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나머지 창조물과 분리되어 있으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려는 것입니다.

4. 창세기 1:1의 해석 좋아요, 계속해서 4. “창세기 1:1의 해석” 으로 가겠습니다. 나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이 당시의 성경 외 문헌과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한 진술임을 언급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이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습니다. NIV는 “하늘”이 복수형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고대 역본, 즉 히브리어를 신약성서로 번역한 고대 역본을 보면 비슷한 번역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 1장 1절을 독립된 절, 즉 마침표가 있는 문장으로 만드는 번역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석과 일부 번역을 보면 독립절 대신 종속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SV를 취하면 킹제임스 성경 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번역 하지만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에 땅이 혼돈하고” ... New English Bible에는 각주가 없습니다. “창조의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번역한 것 뿐입니다 . 이것은 다시 1절을 2절에 종속시킵니다 . 그래서 특히 논평에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독립된 절, 즉 진술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 아니면 다음의 종속절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가장 좋은 번역은 무엇입니까? 나는 문법적으로 둘 중 하나에 대한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특정 문법적 모호성이 있으므로 앞뒤로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1. 창세기 1:1을 독립된 절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4절에서 이에 대해

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개요 시트에 없는 몇 가지 하위 요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즉, “창세기 1:1은 독립된 절로 간주됩니다.” 나는 이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특정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즉, 진술의 의미를 독립 조항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독립절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장의 요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전체 장의 요약입니다. 즉, 신문 헤드라인이나 에세이의 첫 문장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따라야 할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이제 그 해석에 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사실 방금 NIV 연구 성경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6일간의 창조 활동을 소개하는 요약 진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NIV가 취하는 해석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한 견해의 문제는 - 이 모든 견해에는 특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 2절이 창조 이야기의 적절한 시작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이 단지 표제일 뿐이라면 2절은 창조 이야기의 적절한 시작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질서한 창조물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이 깊음 위에 있고” 창조 이야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 로 시작하는 것은 다소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 하지만 1:1을 독립된 조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독립 조항으로 받아들인다면 무에서 창조(*creation ex nihilo*)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무로부터', '무에서 창조'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n ex nihilo*)는 무(無)로부터의
 창조이다. 이 견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질서
 있는 우주의 무(無)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합니다. 2절에 언급된
 구조화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야기는
 실제로 3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2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의 세상 상황을 제시하고, 선재 문제에 대한
 어떤 관념도 제거하기 위해 1절이 앞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창조(*creation ex nihilo*)라는 의미에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3절에서 1절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에 대한 꽤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1절이 무로부터의 창조와
 무에서 창조라는 의미에서 전체 장의 요약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며, “하늘과
 땅”은 구조화되고 질서정연한 우주를 의미할 것입니다.

창세기 1:2 “있었다” 또는 “되다” 이것을 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창세기 1:
 1을 최초의 창조,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최초의
 창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질서 중
 하나였지만, 2절과는 시간상으로 구별되고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가정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가 있었지만 그러다가 뭔가 개입했어요.

파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2절에서 당신은 땅을 읽습니다. 제임스 왕이 말한 것처럼 땅이 “혼돈 하고 공허 *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견해는 1절과 2절 사이의 격변적인 변화를 가정합니다 .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것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사탄의 타락과 연결됩니다 . 반역하여 원래의 위치에서 떨어져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무질서를 가져온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2절의 조건은 하나님이 원래 사물을 창조한 방식이 아니라 이 격변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제 이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있었다” 로 번역된 2절의 동사에 호소합니다. NIV에서는 이 단어가 “was”로 번역되어 있지만 “아마도 되었다”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면 동사 “*hayah* ”가 “to be” 또는 “to be”로 번역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친숙합니다. 이제 그 동사 형태인 *하/야* (to be 또는 to be)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이루다” 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단어는 “존재하게 되다” 를 의미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지 “존재하다” 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어는 때로는 역동적인 의미인 “to be”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지 “to be”라는 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선호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나는 한 가지 견해 또는 다른 견해를 증명하기 위해 단어 자체에 근거를 둔 논증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야가* 항상 역동적인 종류의 아이디어이므로 “되다”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1절과 2절 사이의 격변적인 변화에 대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용법이 그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동사의 의미가 양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신의 주장을 동사의 의미에 근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견해와 관련하여 *하야가*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대한 많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창조 계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원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이 타락한 것을 본 후에는 인간과 동물이 거할 수 있는 곳으로 땅을 재건하는 일이 됩니다.

간격 이론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 Weston Fields 개요 시트의 “III . A. 4.” 참고문헌 시트 페이지 중앙에 Weston W. Fields: *Unformed and Unfilled 항목이 있습니다* . 그것은 창세기 1:1과 1:2에 대한 책 길이의 토론입니다 . 웨스턴 필즈(Weston Fields)는 1:1과 1:2 사이의 격차에 대한 이러한 격변적인 이론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를 읽고 싶다면 간격 이론에 관한 필드의 책을 읽어보세요.

이제 여기서 간격 이론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계보를 논의할 때 이전 개요에서 다루었던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 지질학적 시간을 어디에 두는가?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일할 것이다. 홍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 지질학, 지질학적 시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지층에 대해 이야기했고 창세기 6-9장에 넣을 것입니다. “날” 을 24시간 태양일 이 아닌 특정 기간으로 이해한다면 창세기 1장의 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은 또 다른 대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게 되면 다루겠습니다. 아니면 창세기 1:1과 1:2 사이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질학적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세기 1:1과 1:2 사이에 그 자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견해를 선호합니다.

구약성서에는 사탄의 타락과 이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용된 다양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문제는, 우리는 이 각 구절에 대해 토론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급된 각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들이 사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스겔 28장의 두로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 아니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벨론 왕의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실질적인 의문

을 제기합니다. 창세기 1:2 비록 그 구절들이 사탄에 대해 말하고 있을지라도
2 번 . “창세기 1장 2절이 사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도 실제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그 구절들을
이것에 연결하기 위해 많은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 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그
진술이 물질의 창조를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과 땅은 원시 단계의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주의
구성 요소입니다. GCH Aalders는 이러한 견해를 취합니다. Aalders는 많은
주석과 기타 기사를 쓴 네덜란드 구약성서 학자였습니다. 그는 최근 영어로
번역되어 Zondervan의 The Bible Student Commentary 시리즈에 출판된
창세기에 대한 두 권의 주석을 썼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온지 4~5년 됐네요. 구약성서 주석이 네덜란드어로
출판되었습니다. Aalders는 모든 주석을 쓰지는 않았지만 창세기를 썼고 Aald
ers 의 창세기 주석 중 1권 52페이지에서 1절에 “이것은 단지 제목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첫 번째 견해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 창세기 1장이 완성되었을 때 묘사된 창세기 작업 이후에 나타난 현재의 조직화된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입니다. 우주가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경위는 3~31절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1절의 하늘과 땅은 따라서 세부적인 형성과 질서가 이루어지기 전의 세계의 본질을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나머지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다. 장. 그러면 1절의 하늘과 땅은 우주의 실체를 가리킨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전체가 형성된 물질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2절로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우주의 요소들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물질에 대한 일종의 비유적 명칭으로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질서가 없고 질서가 없을 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하늘과 땅”을 다소 비유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2절과의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는 첫 번째 보기, 제목 보기 또는 이 세 번째 보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2절에 나오는 “땅”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1장의 나머지 부분에 설명된 대로 사물을 명령하기

시작하시기 전의 일종의 구조화되지 않은 존재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 b. 종속절

로서의 창세기 1:1 - 2 견해 알았어 나. 4항은 “창세기 1장 1절을 독립된 절로 취하는 것” 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구에 대해 독립 조항으로 3가지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비. 창세기 1장 1절을 종속절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속절에는 기본적으로 2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2절에 종속된 절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2절을 일종의 괄호로 묶어 3절에 종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1절이 2절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논의의 전체 이유는 히브리어 본문의 첫 번째 단어인 베레 שׁוּט “태초에”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접해보지 않았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히브리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첫 번째 단어가 절대 상태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구성 상태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입니다. . 문법학자들은 그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인 이해를 강력하게 선호하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는 독립된 절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문으로 받아들이면 종속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히브리어를 들어본 분들은 절대 상태와 구성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 내려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토론에서 이어지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절대적인 것을 강력하게 선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소라 본문이 분리형 악센트로 단어에 악센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소라 학자들이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물론 마 소라 학자들은 나중에 서기 1000년쯤에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분리형 악센트로 악센트를 주었습니다. 둘째, 고대 역본들은 그것을 번역할 때 예외 없이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다. 즉, 70인역 헬라어 구약성경, 시리아어 번역본, 그리고 모든 고대 역본은 예외 없이 이를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것이 구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약간의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무게는 절대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괄호(?)로 해석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에” 와 같이 번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절에 종속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니라 흑암이 있고 깊음 위에 계시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2절이 괄호이고 1절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에(땅이 이제 흑암하고 공허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은 1절의 내용에 이어 2절을 괄호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색하고 복잡해집니다. 다음 시간 안에 그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Josh Kulp, James Fallanca, Angie Sykeny, Owen Williams 및

편집자 Alexandria Florez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ely의 최종 편집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가 다시 해설함